

“편리하고 안전한 더 큰 도시 만들 것”

전춘성 진안군수 후보



공공 WiFi 및 정책알리미 TV설치 및 항바이러스 장비 확충, △진안예술회관 건립, △자원봉사활동화 및 센터 건립 등을 내세웠다. 유희지를 활용해 주거 및 상업, 행정, 문화예술체육, 공원 등 핵심 도시 기능 보강을 통해 대도시 수준의 정주환경 구축 기반을 확보해 주민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명품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해 대표적인 변화가로서 청년들의 공간으로 육성하고, 조형물 및 시설외부무대 등을 설치해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를 개최 하겠다는 구상이다. 구도심에서는 재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진안군수 후보는 편리하고 안전한 더 큰 도시 진안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전 후보는 도시 수준의 정주환경 구축을 통한 정주민구 증가와 문화예술 기반의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지역경제 구축을 이뤘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 후보는 편리하고 안전한 더 큰 도시 진안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진안읍 중심지 확장을 위한 진안읍 도시계획 재 정비, △진안읍 중심지 명품문화예술거리 조성, △노후 상가 및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골목 단위 구도심 재생사업, △공공행복주택 임대 및 분양 공급 확대, △마을회관 등

생사업을 실시하고, 어르신들의 통신비 절감 및 공공 정보 사각지대 해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 WiFi 및 정책알리미TV, 항바이러스 장비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춘성 후보는 “진안읍 중심지 확장 계획으로 더 큰 진안을 만들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며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사람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가 적고 농촌이란 이유로 군민들이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에서 살아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진안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업중심 정책으로 장수농업 살릴 것”

최훈식 장수군수 후보



최훈식 후보는 농산물안전기금 400억(연 100억) 편성하여 농산물가격에 하락에 따른 최저가격을 보장하여 농민의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겠다고 말하며 농민수당을 연 15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여 농민의 삶이 보장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은 세계적 농업 강국인 네덜란드를 롤 모델삼아 장수군을 대한민국 제일의 부자농촌을 만들 자신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스마트팜농장 5만평 농군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청년창업 농을 육성하고 미

당의 든든한 장수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수많은 군민의 환호 속에 등장한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도시사후보는 새로운 장수와 새로운 전복을 강조하며 변화와 혁신을 주장했다. 김관영 도시사후보는 최훈식 후보는 젊고 깨끗하며 준비된 군수후보라며 최훈식 후보와 원팀을 강조하며 지역 국회의원인 안호영 의원과 함께 더 잘 사는 장수와 전복을 만들자며 장수군민 앞에서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다. 김 후보는 최훈식 후보의 공약 중 농군사관학교 건립과 농산물안전기금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바쁜 농사철에도 많은 군민이 참석하데 깊은 감사드리며 잘 사는 장수 행복한 장수군민을 위해 더 노력하고 깨끗한 군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 첫 유세로 지지 호소



해서 최선을 다 했다”라며 호소했다. 그는 “이미용권 제도와 군립요양 병원 건립이 가 시화 되어 어르신들이 남은여생을 편히 보내도록 하겠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우리 농가들은 어렵습니다. 잘 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라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 원 조성과 반값 농기계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황인홍 후보는 “지난 4년간 군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뛰었다”라며 “이제 무주는 성장했습니다. 무주는 성장을 넘어서 성숙으로 가아합니다”며 마무리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소속 기호 4번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는 지난 19일 저녁 무풍면에서 출정식을 갖고 첫 유세로 지지를 호소했다.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는 첫 유세로 “무주군의 살림을 크게 키웠다”라며 민선 7기 4년간의 예산확보와 중앙부처의 국도비 확보를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의 위기에서 군민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



세계 금연의 날 현수막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참여하세요”

무주군, 대중매체 활용 홍보·모바일 워크온앱 활용 캠페인

무주군보건의료원은 오는 31일 세계 금연의 날(세계보건기구(WHO)을 맞아 지역주민의 금연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흡연과 간접흡연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무주군보건의료원은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광판, 현수막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하고 스마트폰 사용자 대상으로 모바일 워크온앱을 활용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군민 가운데 금연서약서를 제출한 흡연자들에게 대해 흡연자 금연클리닉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군은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을 하고자하는 이들을 위해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행동강화물품, 금연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보건의료원까지 방문하기 힘든 각 읍·면에 거주한 금연시도자들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방문 간호사를 통해 금연상담도 진행 중이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박지은 주무관은 “캠페인에 참여하신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제공할 예정이다”며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셔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보건의료원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담배 연기없는 청정 무주를 만들기 위해 2022년 흡연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군민들을 대상으로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보건의료원

무주군, 청년 대상 건강검진 연중 지원

무주군이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취업 스트레스와 흡연, 음주 등으로 청년층의 건강위험도 증가 및 청년실업률 증가와 취업준비 기간 장기화로 건강관리 시간부족 등에 따라 이들의 건강을 사전 점검하자는 취지에서다. 무주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신장 기능검사와 고지혈증 검사, 간 기능검사 등 국가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로 나온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다. 군은 이들 증상에 따라 의료원 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금연클

리닉,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맞춤형 사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비타민D 등 건강관리 물품(영양제)도 지원하며,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양미경 팀장은 “취업준비 기간 장기화로 인한 건강관리 시간이 부족하고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국가 검진과 연계한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로 나온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다. 군은 이들 증상에 따라 의료원 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금연클

지역 소식통

무주군, 5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기간 운영

무주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751건에 1,650여만 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국제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 중 환급안 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송 시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사전신고 계좌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 재무과 세입팀 박성민 팀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한다”며 “소액 환급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청구 기간 내에 꼭 찾아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명품수박 생산 맞춤형 현장교육 실시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최종진, 이하 조공법인)이 진안고원 명품수박 생산을 위해 농가 맞춤형 현장교육을 내렸다. 조공법인은 20일 마령면·주천면 수박 공선출하회를 시작으로 10개 읍·면 수박 공선출하회를 대상으로 진안고원 명품수박 생산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진안군의 수박 공선출하회 조직은 10개 조직에 104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농가의 올해 예상 재배면적은 75ha로 전년 49ha 대비 53%나 늘었으며, 45개 신규 농가도 있어 현장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장 교육은 강인진 농협종묘 전북·제주시사장이 직접 각 읍·면 수박 공선출하회 소속 농가를 찾아 진행했으며 발 관리, 재배관리, 생육상태에 따른 적절한 관리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농가별 작물 생육 상황에 맞춘 맞춤형교육으로 진행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큰 특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